

오는 화학방정식 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기초적인 이론이 나중에 실증이 되어 결국은 노벨상까지 받았습니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물을 분해하면 H₂와 O가 생성되고 깨끗한 연료가 되지 않습니까? 수소를 태우면 물이 되지요? 그런겁니다. 예를들어 라이타에는 압전기라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부싯돌로 했는데 부싯돌 없이 누르면 전기 스파크가 나서 불을 붙이는 라이타의 그 압전기는 19세기 퀴리 부인 일가가 발견한 것입니다. 수중에 압력을 가했을 때 전기가 생기는데 그 전기 전압차를 가지고 스파크를 일으키는 그것이 라이타의 형태로 이 세상에 태어난 건 패소 증기원리가 발견된지 50~60년 후가 됩니다.

문제는 기본이론이나 기본현상을 어떻게 우리 현실에 맞게 응용하느냐이고 따라서 응용기술의 발달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녁스를 제거하는 기술만 발견되면 아마 세계시장을 석권할 것입니다. 그런 아주 거대하고 웅대한 포부를 가지고서 관심을 기울여 그러한 걸 해결한다면 세계시장의 1/15이 아니라 1/30~1/40은 우리 환경산업이 차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 환경관리인들이 역경에서 고생하신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연합회의 행사에는 꼭 참석하려고 합니다.

음지에서 고생하고 계신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양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스스로도 노력해 주시고 주위에 있는 여러 분들도 도와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토론회를 마감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

유엔환경회의, 사막화방지책 촉구

유엔의 한 환경보호 국제회의는 세계지도자들에게 오는 2001년까지 사막의 증가를 막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면서 각국 국민들이 환경보호를 위해 보다 능동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 80명의 전문가들은 6월 28일 포르투갈 수도 리스본에서 4일간의 세계삼림보호회의를 마치며 채택한 성명에서 "각 정부가 사막화의 증가속도를 멈추기 위해 강력한 정치적 공약을 발표할 것"을 권고했다.

성명은 또 각 정부에 대해 2001년까지 마을 사람들이 자신들의 토지를 보호하는데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국가적 차원의 삼림보호정책을 적극 개발할 것을 촉구했다.

사막화는 삼림황폐와 가뭄에 의해 초래되는데 주로 아프리카, 서부 아시아, 중미와 남미 등지에서 극심하다.

전문가들은 이와 함께 토지보존 관리를 위해 공공 및 민간분야가 서로 협조할 것을 요망하고 정부가 나무와 숲의 상태를 면밀히 감시할 것을 권장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국민교육, 특히 앞으로는 지속적인 자원관리 책임이 있는 가난한 사람들과 여성, 청소년 교육 강화를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강력한 정치적 의지와 풍부한 재정적·인적 자원이 사막화를 중단시키는데 절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 발표된 한 연구보

고서는 가뭄과 과잉개발로 농지가 사막으로 변하면서 향후 50년 안에 전세계에서 1억5천만여명이 다른 곳으로 이주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네갈과 카포베르데가 공동주최한 리스본회의에서 내려진 결론들은 유엔총회에 제출되며 각 회원국에 권장된다.

세계 이산화탄소 방출량 15% 증가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세계의 이산화탄소 방출량은 2000년까지 이를 줄이기로한 유엔의정서에도 불구하고 1990~95년에 15%나 증가했다고 세계 에너지위원회(WEC)가 최근 발표했다.

런던에 본부를 두고있는 WEC는 보고서를 통해 특히 선진공업국은 2000년까지 화석연료사용에 의한 이산화탄소 방출량을 90년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국가의 경우 방출량이 오히려 늘고 있다고 밝히고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이 보고서는 1990~95년에 이산화탄소 방출량이 가장 크게 증가한 곳은 중동으로 35%였으며 일본, 호주, 뉴질랜드를 제외한 아시아 태평양지역이 30%로 두번째로 높았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현재 세계의 이산화탄소 방출량중 50%는 선진공업국이 차지하고 있으며 35%는 개발도상국들에서 나오고 있다고 밝히고 특히 개발도상국들은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방출량이 더욱 늘어나 2020년에는 50%에 이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